

실패 용납않는 ‘빨리빨리 문화’에 ‘신약의 꿈’ 잇단 좌절

위기의 K-바이오

❶ 문제의 근원 어디인가

K-바이오가 신뢰를 잃고 추락했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시작으로, 에이치엘비의 ‘리보세라닙’, 신라젠의 ‘펙사벡’ 까지 연이어 신약개발의 마지막 문턱인 글로벌 임상 3상을 넘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인 시기였기에, 임상 실패로 인한 투자자의 실망과 손실은 그만큼 컸다. 정부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한 ‘첨단바이오법’을 통과시키고, 바이오를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연간 4조원을 투입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반면, 국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는 얼어붙고, 투자자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위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회생의 기회는 없는 건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바이오주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토종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꿈이 연이어 깨진 영향이 컸다. 더 큰 문제는 잃어버린 믿음이다. 뚜렷한 실체가 없는 바이오 벤처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먹고 자란다. 하지만 ‘기대주’들의 연이은 실패와 경영진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더해지며 투자심리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K-바이오도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 ‘떡튀’한 임원과 뒷집진 당국

7일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 주가는 7.19% 추락한 1만4200원으로 내려앉았다. 한때는 시가총액 10조원을 넘었던 코스닥 대장주는 이날 시가총액이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신라젠 충격은 바이오 업종 전체로 번지고 있다. 올해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예정됐던 의약품은 에이치엘비 경구용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 헬릭스미스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VM 2020’ 등 4가지다. 글로벌 시장에서 허가받은 바이오의약품이 아직 전무한 상황에서 마지막 관문인 이들 신약에

신라젠 펙사벡·코오롱 인보사 무리한 강행이 임상실패 초래 관계자 “R&D비용 등 부담 커” 경영진 잇단 ‘발빠기’ 신뢰 뚫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이 중 에이치엘비와 신라젠이 연이어 실패 소식을 전했다.

임직원들의 ‘떡튀’ 논란이 실망을 키웠다. 신라젠 임직원들은 그동안 스톡 옵션(주식 매수 선택권)을 30여 차례 행사해 20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로 충격을 안긴 코오롱 역시 마찬가지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은 인보사 사태가 일어나기 6개월 전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당시 그가 챙긴 퇴직금은 450억원에 달한다. 특히 코오롱은 인보사가 국내 판매 허가를 받기 전,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정보 유출에 대한 의혹도 끝없이 제기된다. 신라젠의 공매도 잔고가 지난 달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임상 중단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달 31일에는 공매도 거래량이 갑작스레 급증해 의혹을 키웠다. 에이치엘비 역시 임상 지연 소식을 공개하기 직전 공매도가 급증한 바 있다.

◆ 신약개발 “너무 성급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3상 실패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성급함’이 꼽힌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해 신약 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라젠은 지난 2014년 간암치료제 넥사바 투여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환자 129명에 펙사벡을 투여하는 후기 임상 2상을 진행했지만, 생존율을 높이지 못해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신라젠은 펙사벡과 넥사바를 병용 투여하는 방식으로 임상 3상을 강행했다. 애초에 임상 3상을 진행할 근거가 부족했고, 예

견된 실패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인보사가 품목허가를 받기 전인 2017년 초,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보고하거나 재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임상을 강행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사실을 모른 채 국내에서 인보사 판매를 허가했고, 3000명이 넘는 환자가 인보사를 투여 받았다.

신라젠 관계자는 “펙사벡에 대한 확신도 물론 있었지만, 임상 3상이 승인될 당시에는 넥사바가 유일한 간암치료제였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를 받아 진행한 사항이었고, 임상 3상을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도 지금에 서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비용 부담으로 실

패를 용납할 수 없는 환경도 문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 비용으로 대규모 차입금, 투자자금을 업고 가야하는 바이오 벤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성과를 보여줘야하는 부담이 크다. 신약에 회사의 존폐가 걸렸으니 어떻게든 끌고 가야 한다”며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누구보다 크지만 두 번 세 번 두드려보며 갈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의 여유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lfee@metroseoul.co.kr



SolutionPartner

내일을 만드는 화학

지구에게도 인류에게도
깨끗한 에너지는 없을까
오늘에서 내일로 다시 미래로
끝없이 이어질 수는 없을까
무한한 생각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자
멈추지 않는
내일의 힘을 만들자

인류에게 필요한 차세대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은 에너지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가 없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LG 화학

“부분차단 웹사이트 되레 해킹위험 높아”

» 1면 ‘공공기관이 웹차단’서 계속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 차단한 곳도 2곳(15.4%)에 달했다.

또한 시장형 공기업 웹사이트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 개방성 조사에서 8개(53.3%)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거나 전체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발전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 검색을 차단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웹 서버의 성능 저하 때문이다. 하지만 웹발전소는 안정적으로 구축된 웹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 개방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체 개방이 아닌 부분 차단 등을 적용한 웹사이트의 경우 해킹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당수의 기관들은 자신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웹발전연구소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대학 등의 웹 개방성을 평가하는 ‘웹 개방성 평가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처음으로 웹개방성 우수 기관에는 웹 개방성(WOI)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는 단체다.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해 놓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같다”며 “상당수의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처음부터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한 상태로 개설됐지만 그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웹에 공개된 정보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부터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